

역사의 시금석



교감 민병준

인천항은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국내외 해상 운송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서해 제 1의 항구일 뿐 아니라 일찍이 1883년 개항 이래 가장 먼저 해외 선진 문물에 접함으로써 문화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우리 200만 인천시의 현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신을 가리우고 남달리 소박하고 은유하며 겸손하고 또한 검소한 생활을 신조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해 온 이름 없는 존재로서 인천항의 발전을 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인천 항운 노동조합의 근로 역군들이다.

이들은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날 배우지 못한 한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세 자녀들에게만은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 주어야 하며 우수한 인력만이 나라를 융성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확신 밑에 육영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4천여 조합원은 한 갑의 담배와 한 잔의 막걸리를 참아 가면서 지난 10여 년간 2세들의 향학열을 더욱 북돋우기 위하여 1976년 3월6일 제 15년차 대의원 대회에서 장학기금 설립을 발의하여 재단법인 인천 항운 노조 장학금을 설립, 1978년 6월 30일에는 양곡 하역 기계화 보상금에서 장학 기금으로 4,400여 만원을 적립, 이를 공제회에서 관리토록하여 본격적인 장학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마침내 1977년부터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0명에게 2,460만원의 장학금지급을 시작으로 87년도까지 무려 총 수혜자 2,306명에게 353,415,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보다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껴, 1986년 7월 8일 인천 항운 노조 제 6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30명 전원 찬성으로 학교 설립을 의결하였으며 1987년 2월 17일 4천여 조합원의 중의를 모으고자 학교 설립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83.7%의 적극

적인 찬성으로 나타나 동년 3월 19일 인천 향운 노동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약칭)의 운영위원 29명으로 학교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 법인 인항학원”의 정관을 통과시켰으며 아울러 같은 날 발기인 총회에서 학교 법인 인항학원의 이사진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으니 이사장에는 전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한주(鄭漢株) 이사를 추대하고 이사로는 본교 설립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한 설립자 대표이자 인천 향운 노동 조합 위원장이며, 제 13 대 민자당 국회의원의 이강희(李康熙) 의원과,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인 이기성(李起成) 영진공사 회장, 그리고 선광공사 회장인 심명구(沈明求) 인천 신문사 명예 회장, 같은 인천 신문사 사장인 문병하(文炳河) 한염 해운 주식회사 회장과, 조합의 허진훈(許進薰) 부위원장, 같은 조합의 이순식(李順植) 조직 부장과 하일호(河一鎬) 제 2 연락소장, 당연직 이사인 본교 한성완(韓成完) 교장님 등 9명의 이사와, 조합의 차병택(車炳澤) 총무 부장과 전석수(全錫秀) 복지 부장 두 분을 감사역에 각각 선임하였다.

이사진이 구성된 본 학원은 최적의 학교 부지를 각 방면으로 물색한 결과, 학교 설립의 주체인 조합의 인근이며 근로자들의 활동무대인 서해와 부도가 한눈에 보이고, 도로 하나를 경계로 주위에 자리잡은 용현 남국민학교와 용현 여자중학교, 그리고 용현 중학교가 본교와 더불어 발전(田)자로 위치해 있고 장차 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용현 5동 627의 456 현재의 본교 위치가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토지 소유자인 한국 토지개발 공사측과 수차에 걸친 절충 끝에 부지 5,321평(17,592㎡)을 5억 3천여 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인 학교 설립인가 수속에 착수한 조합에서는 설립자 대표인 이강희 위원장으로 하여금 하상명(河相明) 과장에게 학교설립인가신청 및 학교건축업무 일체를 위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권을 위임받는 하상명 과장은 학교 업무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으로 업무수행이 벅찬 임무였으나, 동분서주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여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1987년 6월 20일 법인설립인가신청 및 학교설립허가신청 일건 서류를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수차에 걸친 신청서류의 반송 등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987년 7월 23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대망의 학교법인인가승인과 학교설립의 허가를 받아 1차년도인 1988년에 8학급 451명의 학생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곧이어 1987년 7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항학원의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실공히 근로자의 손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인항학원(仁港學園)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천항운노조의 근로자들이 십수 년간 뽀뽀이 모은 장학금과 한국항만협회 인천지구협회(협회장:이기성) 산하 15개 하역회사에서 기부한 학교설립 지원금 4억원 등 총예산 약 23억 7천만원으로 우선 교지를 매입, 확보한 다음 1987년 9월 14일 삼우건축설계사무소(대표 ; 방순필)에 의뢰하여 그에 의해 교사신축설계가 완료됨과 동시, 건축공사 시공업자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바 삼복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 김복수)로 낙찰되어, 1987년 10월 22일 연건평 2,566평 규모(지상 4층의 본관 2,066평과 부대시설 약 500평의 대강당)의 본교 신축공사가 4천 항만근로자와 2만 항운 가족들의 정성으로 뜻있는 많은 인천시민들의 찬사를 받으며 역사적인 기공의 흠뻑을 들게 되었다.

그러나 10월 하순에 기공한 바 한절기의 공사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적지 않았으니, 학교부지는 원래가 갯벌이었던 것을 매립한 갈대밭으로 12m 길이의 파일(Pile) 469본을 땅에 박는 기초공사부터가 대단한 난공사였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우리 한국의 최선건축공법으로 지상물 건축공사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특히 근로자들의 숭고한 건학의 소망에는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예년에 없이 겨울 날씨가 맑게 일기가 계속 화창하고 온난하여 공사는 순풍에 돛단 듯 마냥 순조롭기만 하였다. 공사장 근로자들의 말을 빌면 서울의 신설학교 교사건축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와 같이 특색있는 설계에다 최신 공법과 새로 개발된 신소재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본교의 교사 건물은 확실히 우리 고장 제 1의 우수한 작품이라고 자부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 조직에 있어서 재단은 경기 교육계의 원로이고 전 경기도 교육위원회 광주교육장을 역임하신 한성원 선생님을 교장으로 영입하고 학교 경영은 물론 교원조직 등 일체의 학교 업무는 학교장에게 일임해 주었다. 이와 같은 재단 방침에 따라 교원조직은 행정주임급의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혼성하는 이원조직의 계획하에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중견교사 5명을 같은 지역사회의 2개 일반계 고등학교로부터 영입하였으니 여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기회에 밝혀 둔다. 아울러 초임교사들은 사단법인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인천직할사회가 시행한 1988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 후보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보 중에서 우수한 성적의 합격자만을 면접과 서류전형으로 엄선, 재단이사장에 추천하여 임용 재가하였으니 이들이 곧 본 인항학원의 창설 교사들로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성일(수학:교무주임), 한수영(생물:학년주임 겸 과학주임),이원규(국어:연구주임),

박재근(체육 : 학생주임), 김규창(미술 : 윤리·새마을주임), 유정수(영어 : 경력 7년), 이건모(지리 : 경력 3년) 이상 경력 교사와,

구열서(국어), 임현규(영어), 최인수(수학), 조영희(윤리), 이재훈(물리), 정경수(독일어) 김명호(공업), 신윤철(교련)

이상 초임교사 등 모두 15명의 교사들이 임용의 행운을 잡은 주인공들로서 대인항의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교원 조직이 끝난 본교에서는 근로자들의 성실한 개인 윤리와 봉사를 신조로 하는 사회윤리에다 이들의 건학 이념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짐을 효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성실·봉사·효행(誠實·奉仕·孝行) 교훈으로 정하였다. 이제 명실공히 학교의 체제를 갖춘 본학원에서는 마침내 1988년 2월 3일 우리 고장의 24개 중학교 출신 451명의 학생을 배정받았으나 금시초문의 신설교인 인항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본인들은 물론 부모들의 근심과 불평은 대단한 바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약 1.2km의 학교·진입로는 비포장으로 말할 수 없이 통행이 불편했으며 건축 공사용 발판은 건물벽에 그대로 매달려 있고 건물 내부 또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다 정지도 되지 않은 운동장 등, 그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불평·불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등하던 불평은 마침내 폭발하여 이들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불평을 토로하고 분노하는 데는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와 같은 불평과 항의 중에서도 촛점이 된 문제는 통학거리, 교통편, 도로사정 등 주로 통학상의 불편이었다.

이를 간파한 학교에서는 시청각실로 학부모들을 안내한 다음 1시간여에 걸쳐 학교 설립의 배경과 기존학교들에 뒤지지 않는 우월한 교원조직, 그리고 어느 학교보다도 자체들을 책임지고 맡아 가르치겠다는 우리 교사들의 결의를 천명설과하였던 바 많은 학부모들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었으며 특히 통학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학교측의 계획은 결정적으로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불평을 완화하는 열쇠가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친절하고 성의있는 지도와 교육을 통해 인항인의 긍지를 심어 주려고 노력한 결과, 학교에 대한 극히 부정적이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월말 의식구조를 설문조사 하였던 바 놀랍게도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83%에 달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1988년 3월2일 많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장과 향운노조가족, 그리고 학부모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451명이 우렁차게 부르는 조병화작사, 최영섭작곡의 교가처럼 망망한 대망의 서해를 바라보면서 세계에 오직 하나뿐인 근로자들이 세운 인문계 고등학교 인항학원은 역사적인 제1회 신입생의 입학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학사 아니! 한국 교육사에 금자탑이 될 한 획을 긋게 되었다.